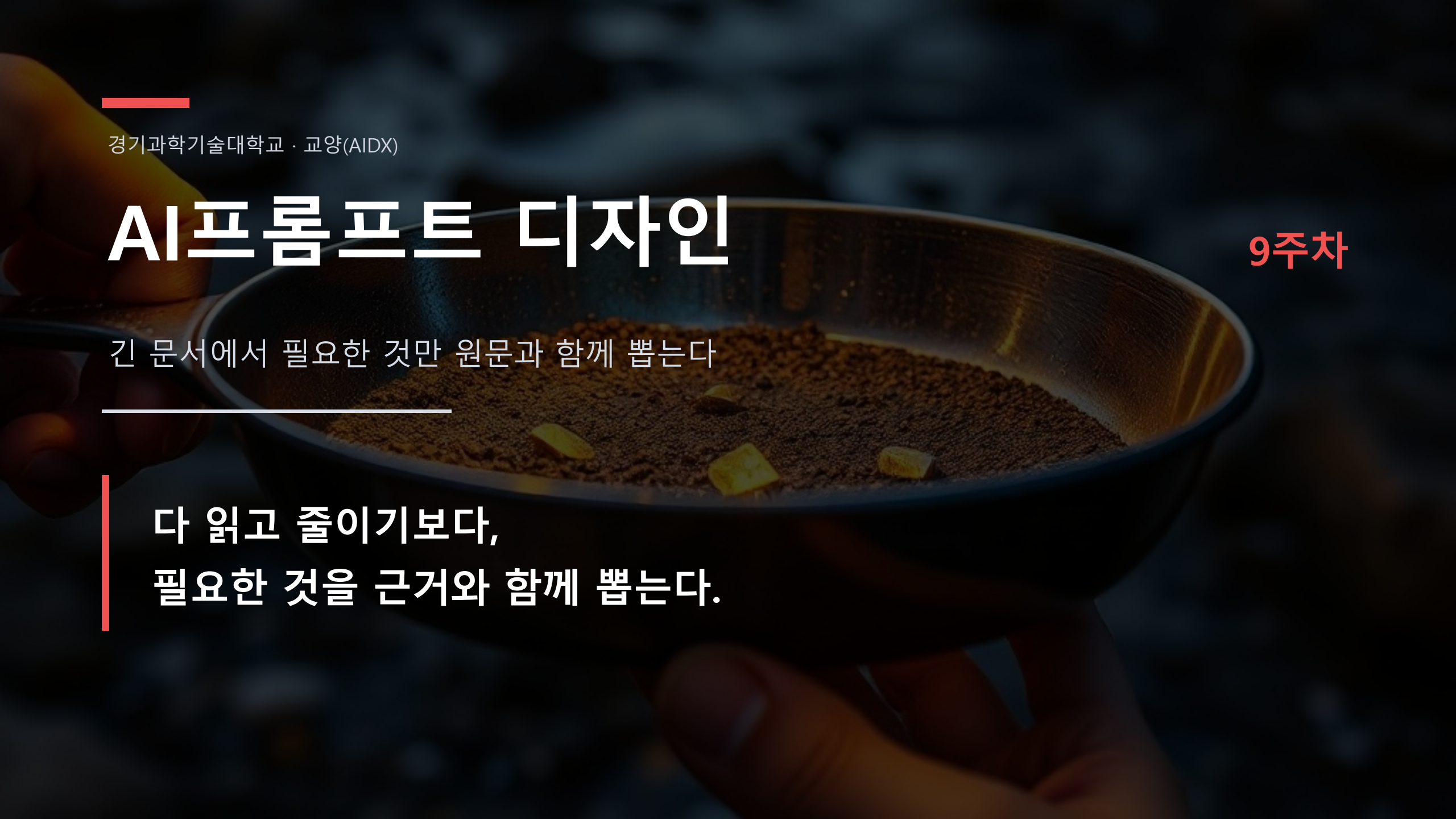




경기과학기술대학교 · 교양(AIDX)

UI/UX 디자인

9주차

긴 문서에서 필요한 것만 원문과 함께 뽑는다

다 읽고 줄이기보다,
필요한 것을 근거와 함께 뽑는다.

오늘의 강의

1교시에 원문을 올리고 근거만 뽑는 법, 2교시에 요건을 뽑아 체크리스트로

1교시



원문을 올리고 근거만

작업대와 오직 이 내용에만
분량은 숫자로

2교시



요건을 뽑아 체크리스트로

[뽑기]와 [체크리스트]
내 문서로 한 장

1교시

원문을 올리고 근거만

긴 문서는 직접 붙이고, 그 안에서만 답하게 한다.

작업대

오직 이 내용에만

분량은 숫자로

오늘 쓰는 요청 꿀: 다섯 칸과 [배경 정보]

역할

누가 하나

목표

무엇을 왜

대상

누가 읽나

조건

얼마나 · 무엇
을 빼나

형식

어떤 모양으로

[배경 정보]

긴 문서 본문을 그대로 붙이는 자리

[앞 단계 결과]

나눠 보낼 때 앞에서 받은 답을 붙이는 자리

오늘은 여기에 [뽑기]를 더한다.

긴 약관을 통째로 주고 「요약해 줘」 한 줄이면

[배경 정보]

(네이버 이용약관 본문을 그대로 붙인다)

<https://policy.naver.com/policy/service.html>

위 약관을 요약해 줘.

여기서 실제 화면으로 함께 본다

원문과 대 보면, 빠진 조건 하나

확인할 곳: 네이버 이용약관 · 콘텐츠 이용 부분

AI 의 요약	원문 문장	같은가
예시 삭제하거나 비공개로 돌린 글은 인공지능 연구에 쓰이지 않는다.	여러분이 위의 관리기능 또는 요청을 통하여 삭제, 비공개 등의 조치를 함으로써 ... 해당 조치 전에 이미 기술적으로 구분이 어렵게 처리된 경우 외에는, 그 조치 시점 이후에는 인공지능 분야 기술 등의 연구 개발 목적으로도 사용되지 않습니다.	조건이 빠졌다: 「해당 조치 전에 이미 ... 경우 외에는」
자료: 네이버 이용약관(시행 2026년 10월 1일)		

요약은 줄이는 것, 뽑기는 필요한 것만 그대로 가져오는 것

✂ 요약

- 전체를 짧게 줄인다
- 무엇이 빠질지는 AI가 정한다

㉹ 뽑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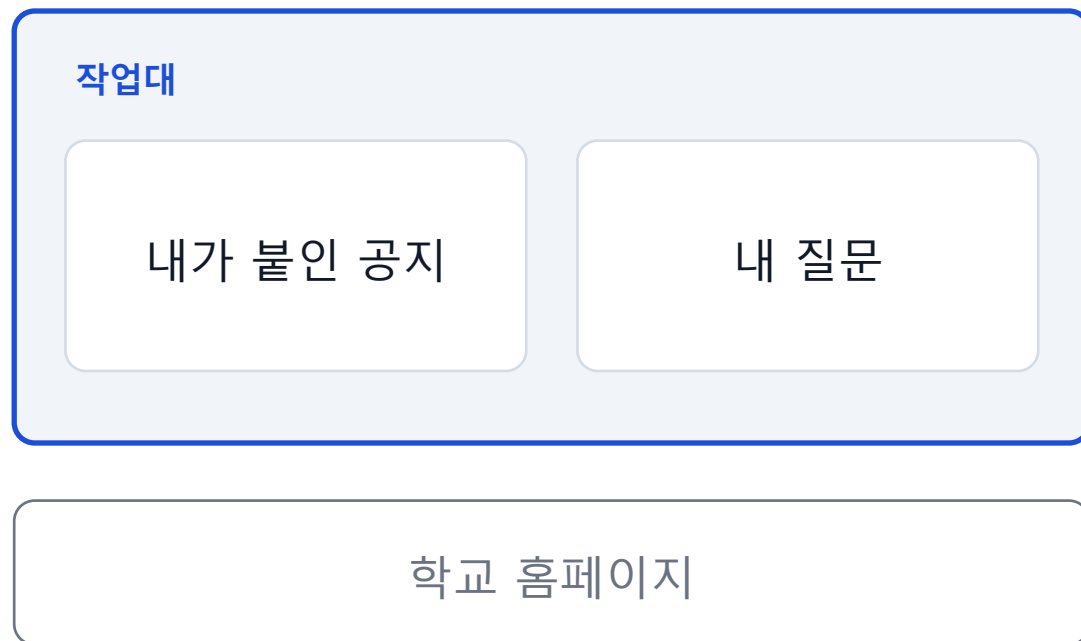
- 내게 필요한 것만 고른다
- 원문 문장을 그대로 가져온다

오늘은 오른쪽을 연습한다.

작업대

Context Window

AI 가 한 번에 올려놓고 보는 자리



이를 기술적인 용어로 '컨텍스트 윈도우(Context Window)'라고 부르는데, 쉽게 말해 AI의 '단기 기억' 또는 '작업대'라고 생각하면 된다.

AI는 오직 이 작업대 위에 올라와 있는 재료들만을 보고, 듣고, 활용하여 결과물을 만들어낸다.

작업대에 올린 것만 본다, 그래서 원문은 직접 붙인다

AI에게는 오직 '지금 이 대화창'만이 세상의 전부다.

AI가 알아야 할 정보를 인터넷에서 찾게 하지 말고, 당신이 직접 복사해서 프롬프트를 작성해보자.

「프롬프트」 p.97~98

찾게 하지 않는다

복사해서 붙인다

창 밖에 있는 것은 아무리 좋은 모델도 못 본다

단서가 입력 창 밖에 있으니 모델이 아무리 좋아도 원리적으로 못 본다.

“모델의 기억력”과 “입력 창의 길이”는 별개의 문제다.

입력 창



창 안: 붙인 글 ✓



창 밖: 붙이지 않은 글 ✕

한국어 긴 문서는 작업대를 더 빨리 채운다

토큰

Token

「프롬프트」 p.46

토큰은 AI가 언어를 처리할 때 사용하는 가장 작은 단위로, 하나의 단어, 단어의 일부분, 구두점, 심지어 공백까지도 각각 개별적인 토큰으로 처리될 수 있다.

「개론」 p.292

토큰 수는 곧 처리 비용·응답 속도·한 번에 다룰 수 있는 문맥의 양이므로, 같은 작업을 시켜도 한국어 사용자 쪽의 체감 효율이 낮아질 수 있다.

원문 없이 「내 글이 인공지능 개발에 쓰이나」를 물으면

네이버에 올린 내 글은 인공지능 개발에 쓰여? 쓰이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

여기서 실제 화면으로 함께 본다

AI 가 말한 것과 약관 원문을 대 보면

확인할 곳: 네이버 이용약관 · 콘텐츠 이용 부분

AI 의 답	원문 문장	같은가
예시 네이버는 이용자의 글을 인공지능 학습에 쓰지 않는다.	또한 여러분이 제공한 소중한 콘텐츠는 ... 인공지능 분야 기술 등의 연구 개발 목적 으로 네이버에서 사용되거나, 자료: 네이버 이용약관(시행 2026년 10월 1일)	원문과 반대다: 원 문은 쓰일 수 있다 고 적었다

「오직 이 내용에만 근거해서 답해 줘」

AI에게 처음부터 질문을 던지는 대신, 당신이 신뢰하는 기사나 보고서의 원문을 프롬프트에 먼저 제공(Context 법칙)하고, “오직 이 내용에만 근거해서 질문에 답해줘”라고 지시하도록 하자. AI가 상상력을 발휘할 틈을 주지 않는 것이다.

「근거가 없으면 없다고 답하라」

“아래 문서를 근거로 답하라. 근거가 없으면 없다고 답하라.”

없는 것을 지어내지 않게 하는 한 줄이다.

같은 질문에 원문과 두 줄을 붙이면

[배경 정보]

(네이버 이용약관 본문을 그대로 붙인다)

네이버에 올린 내 글은 인공지능 개발에 쓰여? 쓰이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
오직 위 약관 내용에만 근거해서 답해 줘. 근거가 없으면 없다고 답해 줘.

여기서 실제 화면으로 함께 본다

「짧게」 대신 숫자로

짧게



3개 · 50단어

(✗) Before: “이 긴 기사를 짧게 요약해 줘.” (○) After: “이 기사의 내용을 3개의 핵심 글머리표(bullet point)로 요약해 줘. 각 글머리표는 50단어를 넘지 않도록 작성해 줘.”

‘조금’, ‘많이’, ‘길게’, ‘짧게’와 같은 표현은 사람마다 기준이 다른 주관적인 단어이다. AI에게는 객관적인 숫자와 구체적인 단위로 요구해야 한다.

「글머리표 3개, 하나에 50자 이내」로 요약하면

[배경 정보]

(네이버 이용약관 본문을 그대로 붙인다)

위 약관의 내용을 3개의 글머리표로 요약해 줘.
글머리표 하나는 50자를 넘지 않게 써 줘.

여기서 실제 화면으로 함께 본다

목적과 읽는 사람을 밝히면 뽑을 것이 달라진다

요청 꼴 다섯 칸 가운데 두 칸

목표

대상

내 글이 어디에 쓰이는지 알고 읽는다



인공지능 연구 이용과 빼는 법

탈퇴하려고 읽는다



탈퇴 전에 할 일

「영장 발부」가 「체포됨」이 된 알림 요약

2024년 11월 · 휴대폰 알림

영장 발부



체포됨

- 2024년 11월, 휴대폰 뉴스 알림 여러 건을 AI 가 한 줄로 묶어 요약하는 기능이 국제형사재판소가 네타냐후 총리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했다는 기사를 「Netanyahu arrested」(네타냐후 체포)로 줄였다.
- 12월에는 같은 기능이 BBC 기사를 사실과 다르게 요약해 BBC 가 공식으로 항의했다.
- 2025년 1월, 애플은 뉴스와 엔터테인먼트 알림 요약을 잠시 멈췄다("Notification summaries for the News & Entertainment category will be temporarily unavailable").

요약은 조건과 꾸밈말부터 떨어뜨린다

줄일 때

줄일수록 「~하면」, 「~뒤에」, 「~할 수 있다」 같은 말이 먼저 빠진다

뽑을 때

그래서 조건이 걸린 문장은 요약하지 말고 원문 그대로 뽑는다

충실성

뽑은 문장마다 원문의 뒷받침이 있는가

Faithfulness

근거 문서가 있는 과제라면 “답의 각 주장에 근거 문서의 뒷받침이 있는가”를 문장 단위로 대조하는 충실성(Faithfulness) 채점이 표준 접근이고

자취방 등기부 안내에서 신입생이 할 일을 뽑으면

너는 처음 자취방을 구하는 대학 신입생을 돕는 선배다.
아래 자료를 먼저 읽어 줘.

[배경 정보]

(생활법령정보 「등기부의 확인 등」 본문을 그대로 붙인다)

위 자료를 바탕으로, 계약 전과 잔금 전에 신입생이 직접 해야 할 일을 뽑아 줘.
읽는 사람은 처음 자취방을 계약하는 대학 신입생이다.
할 일은 5개 이하로, 원문에 없는 내용은 넣지 마.
번호 목록으로 써 줘.

여기서 실제 화면으로 함께 본다

원문과 대 보면, 계약할 때 한 번 · 잔금 전에 한 번

확인할 곳: 생활법령정보 「등기부의 확인 등」 · 맨 아래 Q&A

AI 의 할 일	원문 문장	같은가
예시 계약하기 전에 등기부를 확인한다.	또한, 등기부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확인하고, 잔금을 치르기 전에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료: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잔금을 치르기 전에도 다시 한 번」이 빠졌다

원문을 몰래 고친 답도 원문과 다른 답이다

원문에 실수가 있어도,
AI 가 말없이 고쳤다면 그 답은 원문과 다르다.



그대로 옮겼다



말없이 고쳤다



짚어서 알려 줬다

오늘 쓰는 서비스와 접속

ChatGPT

chatgpt.com

GPT-5.6 Sol

Gemini

gemini.google.com

Gemini 3.8 Flash

Claude

claude.ai

Claude 4.6 Sonnet

화면에서는 이렇게 보입니다: Sonnet 4.6 · 3.8 Flash

문서 원문은 브라우저 새 탭에서 연다.

네이버 약관에서 내가 꼭 알아 둘 것 셋 뽑기

1

네이버 이용약관 본문을 복사한다

2

AI 에 다음 장 프롬프트를 보내고, 새 대화창에서 한 번 더 보낸다

3

뽑힌 셋마다 원문 문장이 약관에 있는지 찾는다

첫 대화창에서 뽑게 하면

[배경 정보]

(네이버 이용약관 본문을 그대로 붙인다)

위 약관에서 네이버를 쓰는 학생이 꼭 알아 둘 것 셋만 뽑아 줘.
항목마다 약관 원문 문장을 그대로 함께 적어 줘.

여기서 실제 화면으로 함께 본다

새 대화창에서 한 번 더 뽑게 하면

[배경 정보]

(네이버 이용약관 본문을 그대로 붙인다)

위 약관에서 네이버를 쓰는 학생이 꼭 알아 둘 것 셋만 뽑아 줘.
항목마다 약관 원문 문장을 그대로 함께 적어 줘.

여기서 실제 화면으로 함께 본다

셋이 원문 문장과 같은가, 조건이 잘리지 않았는가

- 1 붙은 문장이 약관에 글자 그대로 있었나
- 2 두 번 고른 셋이 같았나
- 3 「~경우에는」·「~외에는」 같은 조건이 잘리지 않았나

약관의 함정은 대개 조건에 들어 있다.

한 문장으로 줄이면 · 네이버 약관

[배경 정보]

(네이버 이용약관 본문을 그대로 붙인다)

위 약관을 한 문장으로 줄여 줘.

여기서 실제 화면으로 함께 본다

한 문장으로 줄이면 · 자취방 등기부 안내

[배경 정보]

(생활법령정보 「등기부의 확인 등」 본문을 그대로 붙인다)

위 자료를 한 문장으로 줄여 줘.

여기서 실제 화면으로 함께 본다

한 문장에 남은 것, 빠진 것

질문 1

한 문장에 남은 것은 무엇이
었나

질문 2

내게 필요한 것이 빠지지 않
았나

한 문장 요약은 읽는 사람을 모른다.

원문에 없는 것 묻기 · 포인트가 사라지는 때

[배경 정보]

(네이버 이용약관 본문을 그대로 붙인다)

네이버 포인트는 몇 년이 지나면 사라져?
위 약관에만 근거해서 답하고, 약관에 없으면 「원문
에 없음」이라고 답해 줘.

여기서 실제 화면으로 함께 본다

원문에 없는 것 묻기 · 관리비

[배경 정보]

(생활법령정보 「등기부의 확인 등」 본문을 그대로 붙인다)

자취방 관리비는 한 달에 얼마면 적당해?

위 자료에만 근거해서 답하고, 자료에 없으면 「원문에 없음」이라고 답해 줘.

여기서 실제 화면으로 함께 본다

「원문에 없음」이라고 답했나

확인 1

원문에 없음이라고 답했나

확인 2

없다면서 바깥 이야기를 덧붙이지는 않았나

없다고 하면서 덧붙인 말은 원문 밖에서 온 말이다.

「요약을 시키지 말고, 내 요약에서 빠진 것을 짚어 달라 하라」

요약을 시키지 말고, 내 요약에서 빠진 것을 짚어 달라 하라.

「개론」 p.378

내가 읽고 요약한다

문서가 내 머리에 남는다



AI 는 빠진 것만 짚는다

내가 놓친 곳만 알려 준다

내가 쓴 세 줄 요약을 주고 빠진 것만 짚게 하면

[배경 정보]

(생활법령정보 「등기부의 확인 등」 본문을 그대로 붙인다)

[내 요약]

1. 집을 계약하기 전에 등기부를 확인한다.
2. 등기부는 인터넷으로도 볼 수 있다.
3. 집 호수가 다르면 보호를 못 받을 수 있다.

위 [내 요약]을 고쳐 쓰지 말고, 자료에는 있는데 내 요약에서 빠진 것만 짚어 줘.

여기서 실제 화면으로 함께 본다

짚은 것이 원문에 정말 있는가

확인할 곳: 생활법령정보 「등기부의 확인 등」· 열람 방법 표

AI 가 짚은 것	원문 문장	같은가
예시 요약에 열람 수수료가 빠졌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등기기록 또는 사건에 관한 서류마다 700원 자료: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원문에 있다: 맞게 짚었다

나눠 뽑기

Chunking

너무 긴 문서는 나눠 보내고 합친다

정의

「프롬프트」 p.272

Chunking (청킹) 긴 문서를 처리할 때, 입력 텍스트를 의미 단위로 나눠 여러 번에 걸쳐 모델에 제공하는 기법. 컨텍스트 윈도우 제약을 우회하면서 정보 누락을 방지한다.

조각의 크기

「개론」 p.304

청크의 크기: 너무 잘게 자르면 맥락이 끊긴 조각이 검색되고, 너무 크게 자르면 질문 하나에 규정집 반 권이 딸려 들어간다.

[앞 단계 결과]로 이어 붙인다

원문을 올리고, 근거만, 숫자로

1

원문은 직접 작업대에 올린다

2

그 안에서만 답하고, 없으면 없다고

3

분량은 숫자로, 조건은 원문 그대로

뽑은 것을 이제 체크리스트로 만든다

2교시에는 뽑을 것 넷을 정하고, 원문 문장을 붙여 체크리스트 한 장을 만든다.

1
2

뽑을 것 넷

무엇을 뽑을지 넷으로
정한다



99

원문 문장

뽑은 항목마다 원문 문
장을 붙인다



✓
✓
✓

체크리스트

한 장을 만든다

2교시

요건을 뽑아 체크리스트로

할 일과 기한을 원문 문장과 함께 뽑아 한 장에 정리한다.

뽑을 것 넷

원문 문장 붙이기

[뽑기] · [체크리스트]

오늘의 결과물은 체크리스트 한 장

긴 문서에서 요건과 꼭 들어갈 항목을 뽑아 체크리스트로 정리한다.

☐

☐

☐

요건

내가 하거나 갖춰야 하는 것

요건



반드시 해야 하는 것,
갖춰야 하는 것

참고



알아 두면 좋은 것

체크리스트에는 왼쪽만 옮긴다.

뽑을 것 넷:

할 일 · 기한 · 조건 · 하면 안 되는 것



할 일



기한



조건



하면 안 되는 것

Before는 지시 없이 제멋대로 구성한 요약을, After는 "결정/할 일/기한"이 식별되는 요약을 낸다.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의 요건 셋

할 일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를 고용할 때에는 임금, 근로시간이나 그 밖의 근로조건을 명확히 적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내주어야 합니다

꼭 들어갈 항목

단시간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 근로일, 근로시간의 시작과 종료 시각, 시간급 임금이나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조건

※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의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약관 7쪽을 끝까지 읽은 교사

2019년 · 미국 여행자 보험

- 1 2019년, 미국의 한 여행자 보험 회사가 약관 깊숙한 곳에 「여기까지 읽었다면 메일을 보내라, 첫 사람에게 1만 달러를 준다」는 문단을 숨겼다.
- 2 미국 조지아주의 한 고등학교 교사가 약관을 인쇄해 읽다가 7쪽에서 이 문단을 찾았다("noticed this fabulous paragraph on the seventh page").
- 3 그동안 팔린 보험은 73건쯤이었고, 끝까지 읽은 사람은 그 교사 한 명이었다.

끝까지 읽는 사람은 드물다, 그래서 뽑고 원문으로 확인한다



긴 약관은 거의 아무도
끝까지 읽지 않는다



AI 로 할 일을 뽑고,
붙은 원문 문장으로 확인한다

네이버 약관에서 「탈퇴 전에 내가 할 일」 을 뽑으면

[배경 정보]

(네이버 이용약관 본문을 그대로 붙인다)

네이버를 탈퇴하기 전에 내가 해야 할 일을 위 약관에
서만 뽑아 줘.

항목마다 약관 원문 문장을 그대로 함께 적어 줘.

여기서 실제 화면으로 함께 본다

원문과 대 보면, 공용 게시판 댓글은 남는다

확인할 곳: 네이버 이용약관 · 이용약관 해지 부분

AI 의 할 일	원문 문장	같은가
예시 탈퇴하면 내가 쓴 글은 모두 지워진다.	다만, 이 경우에도 다른 회원이 별도로 답아갔거나 스크랩한 게시물과 공용 게시판에 등록한 댓글 등의 게시물은 삭제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해지 신청 이전에 삭제하신 후 탈퇴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네이버 이용약관(시행 2026년 10월 1일)	원문과 다르다: 공용 게시판 댓글은 남는다

카카오 약관에서 「내가 아무것도 안 하면 생기는 일」을 뽑으면

[배경 정보]

(카카오계정 약관 본문을 그대로 붙인다)

약관이 바뀔 때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위 약관에서만 뽑아 줘.

항목마다 약관 원문 문장을 그대로 함께 적어 줘.

여기서 실제 화면으로 함께 본다

원문과 대 보면, 7일 후까지 거부하지 않으면 승인

확인할 곳: 카카오계정 약관 · 제2조

AI 의 답	원문 문장	같은가
예시 아무것도 안 하면 바뀐 약관에 동의한 것이 된다.	... 개정약관 시행일 7일 후까지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승인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확하게 고지 하였음에도 여러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변경된 약관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자료: 카카오계정 약관(시행 2026년 9월 30일)	기한이 빠졌다: 「7일 후까지」

같은 질문을 두 약관에 던지면 한 줄씩 나란히

네이버 이용약관

시행 2026년 10월 1일

여러분에게 불리할 수 있는 중대한 내용의 약관 변경의 경우에는 최소 30일 이전에 해당 서비스 내 공지하고 별도의 전자적 수단(전자메일, 서비스 내 알림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알릴 것입니다.

카카오계정 약관 제2조

시행 2026년 9월 30일

피치 못하게 여러분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변경할 경우에는 그 시행일자 30일 전부터 카카오계정에 등록된 이메일 주소로 이메일(이메일주소가 없는 경우 서비스 내 전자쪽지 발송, 서비스 내 알림 메시지를 띄우는 등의 별도의 전자적 수단) 발송 또는 여러분이 등록한 휴대폰번호로 카카오톡 메시지 또는 문자메시지 발송하는 방법 등으로 개별적으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여러 문서를 표 한 장으로 모으는 일은 다음 주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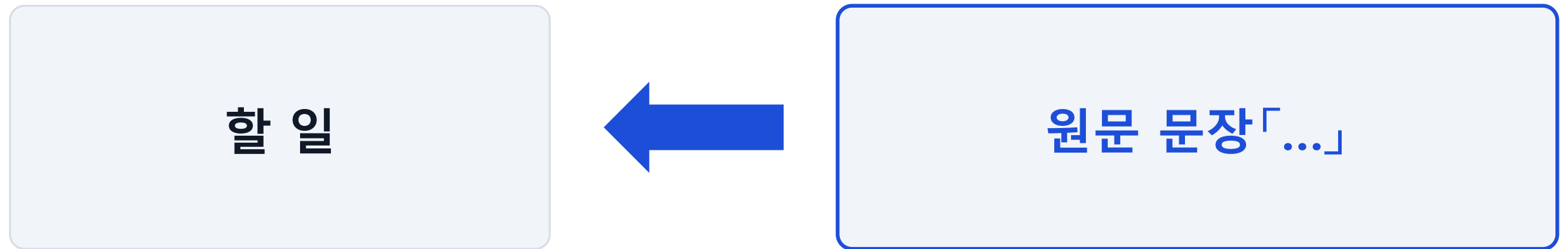
요약을 잘한다고 계약 검토까지 맡기지 않는다

문서 요약을 잘하는 시스템이니 계약 검토도 맡기자는 식의 비약은, 과제가 달라지면 능력을 보장할 수 없다는 ANI의 정의를 잊은 결정이다.

「개론」 p.14

뽑기는 도움을 받고, 동의할지는 내가 원문을 읽고 정한다.

뽑은 항목마다 원문 문장을 그대로 붙여 받는다



붙은 원문 문장이 곧 원문에서 확인할 곳이다.

원문 문장을 붙여 뽑게 하면

[배경 정보]

(생활법령정보 「등기부의 확인 등」 본문을 그대로 붙인다)

등기부를 언제, 어디서, 얼마에 확인하는지 위 자료에서만 뽑아 줘.

항목마다 원문 문장을 그대로 함께 적어 줘. 원문에 없으면 「원문에 없음」이라고 적어 줘.

여기서 실제 화면으로 함께 본다

붙은 문장을 원문에서 찾기로 찾아본다

확인할 곳: 생활법령정보 「등기부의 확인 등」

붙은 문장	원문에서 찾았나	글자가 같은가
예시 「등기부는 계약할 때와 잔금 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 찾기에 걸리지 않음	또한, 등기부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확인하고, 잔금을 치르기 전에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료: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다르다: 원문을 다듬어 쓴 문장

찾기 기능에 문장 앞 몇 글자만 넣는다.

원문에 없으면

「원문에 없음」이라고 적게 한다

빈칸을 지어내지 않게, 없는 것은 없다고 적게 한다.

기한: 원문에 없음

비용: 원문에 없음

체크리스트 한 줄은 동사로 시작한다



등기부



등기부를 계약할 때
확인한다

무엇을 하는지가 보여야 지을 수 있다.

뽑기는 AI 가, 체크는 내가



AI 의 목록을 그대로 체크리스트로 쓰지 않는다.

[뽑기]

[뽑기]

위 [배경 정보]에만 근거해서 내가 할 일, 기한, 조건, 하면 안 되는 것을 뽑아 줘.

항목마다 원문 문장을 그대로 함께 적어 줘. 원문에 없으면 「원문에 없음」이라고 적어 줘.

[체크리스트]

[체크리스트]

☐ (동사로 시작하는 할 일) · 기한: (날짜나 「없음」) · 근거: 「원문 문장」

☐

☐

한 줄에 할 일 · 기한 · 근거 셋을 적는다.

요청 꿀 안에서 [뽑기]가 붙는 자리

1

역할 줄 · 아래 자료를 먼저 읽어 줘

2

[배경 정보] 원문

3

[뽑기]

4

읽는 사람 · 조건 · 형식

[뽑기]는 원문 바로 뒤에 붙인다.

자취방 등기부 안내를 [뽑기]로 보내면

[배경 정보]

(생활법령정보 「등기부의 확인 등」 본문을 그대로 붙인다)

[뽑기]

위 [배경 정보]에만 근거해서 내가 할 일, 기한, 조건, 하면 안 되는 것을 뽑아 줘.

항목마다 원문 문장을 그대로 함께 적어 줘. 원문에 없으면 「원문에 없음」이라고 적어 줘.

자료: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여기서 실제 화면으로 함께 본다

체크리스트로 옮기기 전에, 근거 문장이 원문에 있나

확인할 곳: 생활법령정보 「등기부의 확인 등」

뽑힌 항목	원문 문장	체크리스트로 옮기나
예시 집 호수가 등기부와 같은지 확인한다.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집합건물의 경우에는 표제부에 나와 있는 동, 호수가 임차하려는 주택의 동, 호수와 일치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료: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옮긴다: ☐ 계약서의 동, 호수가 등기부와 같은지 확인한다

긴 약관을 둘로 나눠 뽑고 합치면

[앞 단계 결과]

(약관 앞부분에서 뽑은 목록을 붙인다)

[배경 정보]

(네이버 이용약관 뒷부분을 그대로 붙인다)

위 [배경 정보]에서 탈퇴와 관련해 내가 할 일을 뽑아 [앞 단계 결과]에 합쳐 줘.

겹치는 것은 하나로 적고, 항목마다 원문 문장을 그대로 함께 적어 줘.

여기서 실제 화면으로 함께 본다

합친 목록에 겹친 것, 빠진 것

확인할 곳: 네이버 이용약관 전체

합친 목록	원문 문장	겹침·빠짐
예시 공용 게시판 댓글을 지운다(앞뒤에서 두 번 나옴)	다만, 이 경우에도 다른 회원이 별도로 담아갔거나 스크랩한 게시물과 공용 게시판에 등록한 댓글 등의 게시물은 ... 반드시 해지 신청 이전에 삭제하신 후 탈퇴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네이버 이용약관(시행 2026년 10월 1일)	겹침: 하나로 적는다

함정 조건 찾기 ·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안내

[배경 정보]

(생활법령정보 「근로계약서의 작성」 본문을 그대로 붙인다)

위 자료에서 「~경우」, 「~때」처럼 조건이 붙은 문장만 뽑아 줘.

조건 부분은 빼지 말고 원문 그대로 적어 줘.

여기서 실제 화면으로 함께 본다

함정 조건 찾기 · 카카오 약관

[배경 정보]

(카카오계정 약관 본문을 그대로 붙인다)

위 약관에서 「~이면」, 「~후까지」, 「~경우」처럼
조건이 붙은 문장만 뽑아 줘.

조건 부분은 빼지 말고 원문 그대로 적어 줘.

여기서 실제 화면으로 함께 본다

「경우」·「후까지」 같은 조건이 살아 있었나

1

조건 부분이 잘린 문장이 있었나

2

원문에 있는 조건 문장을 빠뜨리지 않았나

체크리스트의 함정은 대개 조건 부분에 있다.

원문 실수 찾기 · 등기부 안내의 낱말

[배경 정보]

(생활법령정보 「등기부의 확인 등」 본문을 그대로 붙인다)

위 자료에 주제와 맞지 않는 낱말이나 문장이 있으면 원문 그대로 짚어 줘. 고쳐 쓰지는 마.

여기서 실제 화면으로 함께 본다

원문 실수 찾기 · 아르바이트 계약서 안내

[배경 정보]

(생활법령정보 「근로계약서의 작성」 본문을 그대로 붙인다)

위 자료에 서로 맞지 않는 낱말이나 문장이 있으면 원문 그대로 짚어 줘.

없으면 「찾지 못함」이라고 답하고, 고쳐 쓰지는 마.

여기서 실제 화면으로 함께 본다

고쳤나, 옮겼나, 짚었나, 지어냈나

※ 등기부에서 확인할 수 없는 권리관계도 있으므로 등기부를 열람하는 것 외에 상가건물을 직접 방문하여 상가건물의 권리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대로 옮겼다

말없이 고쳤다

짚어서 알려 줬다

없는 실수를 지어냈다

2교시

이제부터는 직접 실습



문서 하나와 [뽑기] · [체크리스트] 빈 양식 준비하기

문서 하나 고르기, 내 상황 한 줄

고를 문서

네이버
이용약관

카카오계정
약관

생활법령정보
등기부 안내

생활법령정보
근로계약서 안내

1. 문서 하나를 고르고, 내 상황을 한 줄로 적는다
2. [배경 정보]에 원문을 붙이고 [뽑기]로 보낸다
3. 원문에서 근거 문장을 찾아 [체크리스트]를 채운다

제출: 체크리스트 한 장(근거 문장 포함)

요청문 5칸 + [배경 정보] 원문 + [뽑기]

너는 (역할)이다.

[배경 정보]

[뽑기]

읽는 사람은 (대상)이다.

역할: 아르바이트를 여러 번 해 본 선배

대상: 처음 아르바이트 계약서를 받는 1학년

뽑기 결과 받기

너는 (역할)이다.
아래 자료를 먼저 읽어 줘.

[배경 정보]
(내가 고른 문서 본문을 그대로 붙인다)

[뽑기]
위 [배경 정보]에만 근거해서 내가 할 일, 기한, 조건, 하면 안 되는 것을 뽑아 줘.
항목마다 원문 문장을 그대로 함께 적어 줘. 원문에 없으면 「원문에 없음」이라고 적어 줘.

읽는 사람은 (대상)이다.

여기서 실제 화면으로 함께 본
다

원문에서 근거 문장을 찾아 체크리스트 채우기

[체크리스트]

□ (동사로 시작하는 할 일) · 기한: (날짜나 「없음」) · 근거: 「원문 문장」

🔍 뽑힌 항목마다 근거 문장을 원문에서 찾고, 찾은 것만 옮긴다.

교수 예시 · 채운 체크리스트 한 장

- 일을 시작할 때 근로계약을 받는다 · 기한: 고용될 때 · 근거: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를 고용할 때에는 임금, 근로시간이나 그 밖의 근로조건을 명확히 적은 근로계약을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내주어야 합니다」
- 계약기간과 근로일이 적혔는지 확인한다 · 기한: 서명하기 전 · 근거: 「단시간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 근로일, 근로시간의 시작과 종료 시각, 시간급 임금이나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 근로시간과 휴게가 적혔는지 확인한다 · 기한: 서명하기 전 · 근거: 「근로시간·휴게에 관한 사항」
- 시간급 임금이 적혔는지 확인한다 · 기한: 서명하기 전 · 근거: 「단시간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 근로일, 근로시간의 시작과 종료 시각, 시간급 임금이나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내 체크리스트에서 빠진 것을 짚어 줘」

[배경 정보]

(내가 고른 문서 본문을 그대로 붙인다)

[체크리스트]

(내가 채운 체크리스트를 붙인다)

위 [체크리스트]를 고쳐 쓰지 말고, 문서에는 있는데 체크리스트에서 빠진 할 일만 짚어 줘.

항목마다 원문 문장을 그대로 함께 적어 줘.

여기서 실제 화면으로 함께 본다

체크리스트 고치기

1

원문에서 찾은 것만
더한다

2

근거 칸이 빈 줄은
지운다

무엇이 빠졌고, 무엇이 원문에 없었나

1

근거 칸이 빈 줄이
남았나

2

「원문에 없음」이
나온 항목은
무엇이었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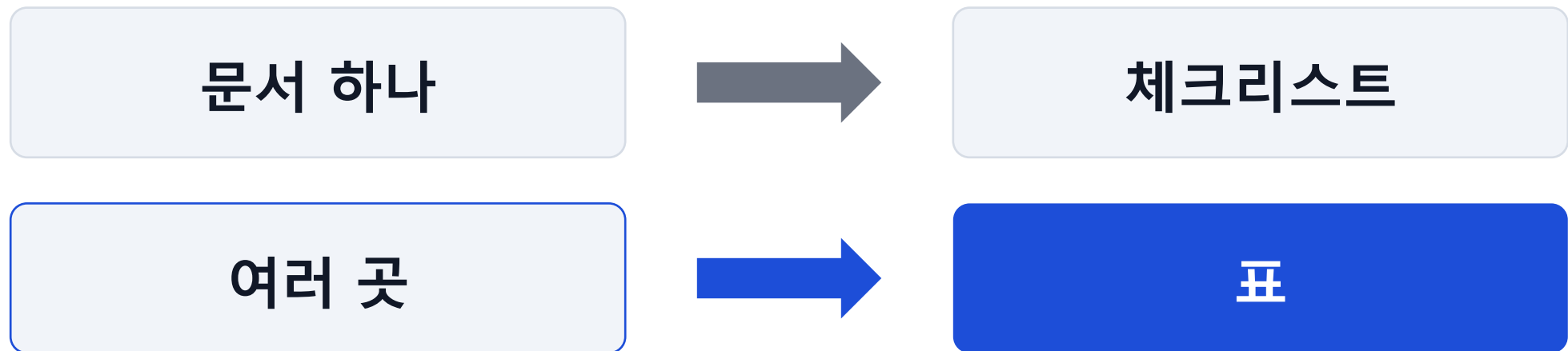
3

조건이 잘린 줄은
없나

「원문에 없음」이 나온 항목은 밖에서 따로 알아볼 거리로 남긴다.

다음 주는 여러 곳의 정보를 표 한 장으로

오늘은 문서 하나에서 체크리스트, 다음 주는 여러 곳의 정보를 기준에 따라 표 한 장으로.



안 될 때 여기부터

틀림

- 문서 없이 묻고 답을 믿음
- 「요약해 줘」 한 줄로 끝냄
- AI 목록을 그대로 체크리스트로 씀

맞음

- ✓ 원문을 직접 붙인다
- ✓ 무엇을 뽑을지 넷으로 정한다
- ✓ 원문 문장을 찾아 확인하고 옮긴다

뽑기는 AI 가, 체크는 내가

오늘 공부한 내용

AI 는 작업대에 올린 것만 본다. 원문은 직접 붙인다

오직 이 내용에만 근거해서, 없으면 없다고

분량은 숫자로, 조건이 걸린 문장은 원문 그대로

뽑을 것 넷: 할 일 · 기한 · 조건 · 하면 안 되는 것

[뽑기]는 AI 가, [체크리스트]는 내가 원문에서 확인하고

다음 주엔 흠어진 정보를 표 한 장에

여러 곳에 흠어진 정보를 기준을 세워 표 한 장으로 정리합니다



다음 주 예고

- 흠어진 정보를 표 한 장으로
- 분류 기준 · 표 · 우선순위